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Gambling Behavior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 The mediation effects of self-control and family support -

Byeong-Il Jeong*, Sang-Uk Baek**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gambling behaviors through their self-control and family support. For this, it conducted the questionnaire on life stress, self-control, family support and gambling behavior with 387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in Gwangju city and analyzed the data collec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described below.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rect effects of life stress on gambling behavior, self-control and family support, it was found that the life stress had the positive effect on gambling behavior and it meant that when the university students couldn't cope with the life stress effectively and felt frustrated, they were likely to be involved in gambling behavior to escape from their helplessness.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rect effects of life stress on self-control and family support, it was found that life stress had negative effect on self-control and family support. The more experiences of life stress they had, the lower their self-control was. As their life stress was higher, they didn't make supportive relationship network with family members. As a result of mediating effects, it was shown that self-control and family support played the partially negative ro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gambling behavior and it suggested that as the life stress was perceived less, self-control was performed better and as family support was higher, gambling behavior was effectively reduced. These results of the research suggested that life stress could be handled actively through self-control and family support and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the program to cope with life stress could minimize the gambling behaviors. Also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necessity of further studies were discussed.

▶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Life stress, Self-control, Family Support, Gambling behavior, Phantom variable, Bootstrap

I. introduction

우리사회에서 대학생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최근
에 정부가 허가한 사행산업에 저항감 없이 노출되어 일반인에
비해 대학생이 도박에 참여하는 비율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
다. 이러한 도박행동으로 인한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
는 대학생이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
중에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생활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1].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중시키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건전한 방식으로 생활스트레
스에 대처하기도 하지만 일부 대학생들은 술과 담배, 게임 및
도박행위 등을 통해 생활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다[2]. 실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문제, 취업문제와 같은 불안정한 심
리상태에서 발생하는 생활스트레스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
급과 기술발전으로 인한 용이한 접근성은 대학생들에게 현실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3]. 그동안 생활스트레스와

• First Author: ByeongIl Jeong, Corresponding Author: SangUk Baek

*Byeong-Il Jeong(oh2ne@daum.net), Dept. of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SangUk Baek(bsanguk@naver.com), Dept. of Social Welfare, Songwon University

• Received: 2016. 11. 09, Revised: 2016. 12. 12, Accepted: 2017. 01. 07.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요인 및 위험요인을 찾고 생활스트레스를 교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원충모델을 통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같은 상황이라도 스스로 자신의 개인적 또는 환경적인 자원을 활용하고 대처하는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4]. 따라서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를 대처할 보다 현실적이고 다양한 보호요인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보호요인은 개인적 보호요인과 환경적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5].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적 보호요인으로 자기통제력을 환경적 보호요인으로 가족지지를 설정하여 보호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자기통제력은 생활스트레스에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언급되었고,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연구대상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6][7][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 개인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환경적 보호요인인 가족지지는 가족으로부터 개인에게 주어지는 정서적이며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9]. 가족지지는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증진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10].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업 및 취업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보호요인으로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보면 대학생이 인지한 생활스트레스는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과 환경적인 보호요인이 자기통제력과 가족지지가 매개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취약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보호요인으로 개인적인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나 환경적인 보호요인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보호요인을 2개의 요인으로 확대하여 개인과 환경적인 보호요인이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보호요인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활용하여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가 도박행동으로 이어지는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론적인 근거와 실천적인 적용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I. Theoretical discussion

본 연구는 생활스트레스, 자기통제력, 가족지지, 도박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관련성과 이론적인 모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Life stress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는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학업 및 취업영역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요소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고 하며 그에 따른 차이로 발생하는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 정도로 정의 할 수 있다[11].

이러한 생활스트레스는 도박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이는 생활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도박행동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스트레스 경험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도박중독수준도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13].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생활스트레스는 도박행동과의 관계에서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2. Self-control

자기통제력은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 더 충동적이고, 순간적이며, 단순한 사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이는 자기통제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인 경우 도박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자기통제력과 생활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대학생의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한다고 하며 스트레스는 대학생활의 적응에 그 자체로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낮은 통제력을 보여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한다[15]. 이러한 대학생들의 낮은 자기통제력은 즉각적이고 쉽고 간단한 스트레스 욕구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도박중독에 빠져든다고 한다. 자기통제력과 도박행동과의 관계에서는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개인적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도박행동과 자기통제력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즉, 자기통제력이 강하면 도박행동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통제력이 잘 조절되며 높을수록 도박의 심각도가 낮아지는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기통제력이 조절되지 못하고 낮은 경우 문제성 도박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3. Family Support

가족지지는 환경적인 보호요인으로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존중과 가치감을 갖도록 해주는 사랑이며, 가족관련 변인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위대한 효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가족지지와 생활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는 가족단위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대처하는데 도움을 준다[18]. 특히 양친부모 중 어느 한쪽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스트레스를 더 잘 완충시킨다고 한다[19]. 가족지지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는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도박동기와 도박행동

이 감소하였다[20]. 이를 통해 가족지지가 도박행동을 조절해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4. Gambling behavior

대학생의 도박행동은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박행동을 보이며, 도박을 지속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대학생의 도박행동에 대한 주요변인들 중에 개인적인 요인과 가족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21]. 또한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인한 다양한 스포츠에 대한 배팅이 가능해지면서 대학생의 도박행동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도박행동은 개인에서 시작하여 집단으로 확대되기도 하며 대학생들의 학업과 취업의 다양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고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박행동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도박행동에 대한 보호요인들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대학생이 지각하는 생활스트레스가 발생하였을 때 자기통제력과 가족지지에 따라 도박행동의 정도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대학생의 도박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방안을 정립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I. Methodology

1. subject analytic framework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생활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구조방정식의 모델을 사용하여 검증한다. 이들 변수간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선행연구의 인과관계를 통하여 생활스트레스는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자기통제력과 가족지지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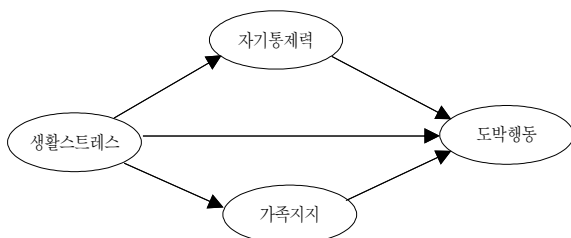


Fig. 1. Research framework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1.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는 자기통제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는 가족지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는 도박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자기통제력은 도박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5. 가족지지는 도박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6.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 가설7.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가족지지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 variable setting

2.1 Life stress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경구, 김교현, 그리고 이준석(2000)이 개발한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로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검사는 지난 1년 동안 스트레스 경험빈도와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장효광(2015)이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용한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였다. 검사 내용은 당면과제 차원 영역과 대인관계 차원 영역으로 나뉘져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대학생의 학업문제, 경제문제, 장애문제, 가치관 문제로 구성된 당면과제 4개 차원과 동성친구, 이성친구, 가족관계, 교수관계로 구성된 대인관계 4개 차원으로 총 8개의 하위요인으로 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50~2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차원과 당면과제차원 영역으로 나눠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Self-control

자기통제력은 박혜연(2004)이 재구성한 척도를 장효강(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총28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통제력 척도는 자기중심성, 충동성, 화내는 기질, 과제완수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 내 10, 14, 22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충동성을 잘 통제하며, 화내는 기질도 잘 조절하여 과제완수를 잘 해낸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중심성, 충동성, 화내는 기질, 과제완수의 4개의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2.3 Family Support

가족지지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척도를 부분 수정한 김승미(1998)의 2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지

지 척도는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2.4 Gambling behavior

도박행동은 도박중독 유형률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국내 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척도 중에서 병리적인 도박중독보다는 일반인의 도박문제를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고 개발된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척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아영 등(2011)이 한국 실정에 맞게 변안한 한국판 문제도박척도 K-CPGI(Korean-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척도를 사용하였다.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지난 1년간 도박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나 1년간 도박을 하지 않았을 경우 비문제성 도박으로 분류된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0점), 거의 아니다(1점), 조금 아니다(2점), 매우 그렇다(3점)으로 구성된 리커트 4점 척도이다. 척도상의 분류는 0점 : 비문제성 도박자, 1-2점 : 저위험성 도박자, 3-7점 : 중위험 도박자, 8점 이상: 문제성 도박자로 분류하며 도박수준을 0~3수준으로 구분한다.

3. characteristics of sample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생 45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450부 중 412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87명을 연구의 분석대상자로 확정하였으며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387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변인들 간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을 하였으며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매개변수가 갖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또한, 자기통제력과 가족지지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변수를 사용한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다중매개효과를 도출하였다.

IV. the result of research

1. Respon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본 연구에 참여한 설문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Table. 1. Sample's general information (n=387)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77	45.7
	여성	210	54.3
학년	1학년	93	24.0
	2학년	99	25.6
	3학년	102	26.4
	4학년	93	24.0
흡연량	비흡연	318	82.2
	1-5개비	13	3.4
	6-10개비	21	5.4
	11-20개비	31	8.0
	21개비이상	4	1.0
음주량	비음주	154	39.8
	소주 1-2잔	33	8.5
	소주 3-4잔	37	9.6
	소주 5-6잔	39	10.1
	소주 6잔이상	124	32.0
한달용돈	0-10만원	74	19.1
	11-20만원	83	21.4
	21-30만원	98	25.3
	31-40만원	66	17.1
	41만원이상	66	17.1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성별, 학년, 흡연량, 음주량, 한 달 용돈으로 구분하였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387명의 표본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은 54.3%로 남학생 45.7%보다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3학년 학생이 2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학년 25.6%, 1학년과 4학년은 24.0%를 보였다. 흡연량은 비흡연자가 82%, 11-20개비 8.0%, 6-10개비 5.4%, 1-5개비 3.4%, 21개비이상 1.0%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량은 비음주가 39.8%였고 소주6잔 이상이 32.0%로 다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 달 용돈은 21-30만원 25.8% 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11-20만원 21.4%, 0-10만원 19.1%, 31-40만원과 41만원 17.1% 순으로 나타났다.

2.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변인인 생활스트레스, 가족지지, 자기통제력, 도박행동 간 상관관계수, AVE, 개념신뢰도는 < 표 2>와 같다.

Table. 2. variables cross correlation, AVE and standard deviation

	1	2	3	4
1 생활스트레스	1			
2 자기통제력	-.329**	1		
3 가족지지	-.331**	.281**	1	
4 도박행동	.296**	-.229**	-.237**	1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상관 분석결과 모든 변인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생활스트레스와 도박행동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족지지와 자기통제력과의 상관관계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정적 상관과 부적 상관의 경향성 또한 동일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변인들을 살펴보면, 생활스트레스는 자기통제력(r=-.329, p<.01), 가족지지(r=-.331, p<.01)와는 부적 상관을 도박행동(r=.296, p<.01)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기통제력은 생활스트레스(r=-.329, p<.01)와 도박행동(r=-.229, p<.01)과는

부적 상관을 가족지지($r=.281, p<.01$)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가족지지는 생활스트레스($r=-.331, p<.01$)와 도박행동($r=-.237, p<.01$)과는 부적 상관을 가족지지($r=.281, p<.01$)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도박행동은 자기통제력($r=-.229, p<.01$)과 가족지지($r=-.237, p<.01$)와는 부적 상관을 생활스트레스($r=.296, p<.01$)와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d validity review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잠재변인들을 확인하여 구조모형에서 측정변수들이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적합도 검증을 위해 ML 추정법을 통하여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절대적합지수 GFI의 값은 .969이며 AGFI는 .937으로 .9이상으로 적합을 보였으며, RMSEA의 값은 .061로 수용기준인 .8이하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증분적합지수인 NFI의 값은 .957, IFI는 .974, TLI는 .957, CFI의 값은 .974로 모두 수용기준인 .9 이상으로 적합하였다. 또한 간명적합지수인 PNFI는 .574, PCFI는 .584로 수용기준인 .5이상을 보여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들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첫째 집중타당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잠재변수별로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하며 표준화 요인적재량이 .5이상 이어야 한다. 둘째, AVE는 표준화 요인적재량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으로 계산하며, 특정 잠재변수에 대한 하위 측정변수들이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말한다. AVE가 .5 이상일 때 집중타당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스트레스 .620, 자기통제력 .734, 가족지지.701, 도박행동 .882로 집중타당도가 인정된다. 셋째, 개념 신뢰도는 .7 이상이면 집중타당도가 인정되며, 하나의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변수들 간의 공유분산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 신뢰도 측정값이 생활스트레스 .765, 자기통제력 .845, 가족지지.903 도박행동 .937로 모두 수용기준보다 높게 나타나 신뢰성이 인정된다. 넷째 모든 잠재변수들의 분산평균 값들은 관련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게 나타나 잠재변수들의 판별타당이 인정된다. 이상의 분석결과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이 양호한 수렴적 타당성과 잠재변수들 간의 변별성이 존재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형으로 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검증결과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수렴타당도는 <표 3>과 같다.

Table 3. AVE and Reliability

	생활 스트레스	자기 통제력	가족 지지	도박 행동	비고
개념신뢰도	.765	.845	.903	.937	≥.7
AVE	.620	.734	.701	.882	≥.5

4. research model's estimation and modification

모형의 식별은 과대식별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과대식별 모형이 추정해야 할 경로계수의 수보다 계수 측정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의수가 더 많아 정확한 해를 측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적의 해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모형에 대해 적절한 상관이나 경로를 찾기 위해 기본적으로 라그랑지의 승수(Lagrange Multiplier)검정을 이용한다. 먼저 각각의 오차항 간의 관련성을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통해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모델의 경로나 상관 중 유의하지 않은 것을 찾아 단순모델로 개념화하고, 경로 중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찾아 제거했다. 구체적으로 수정지수를 이용하여 수정모델 2를 최종 모델로 선택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모델의 측정정도를 나타내는 증분적합지수인 NFI .956, IFI .974, TLI .958, CFI .974로 수용기준인 .9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두 개 이상의 모델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간명적합지수인 PNFI .595, PCFI .606으로 수용기준인 .5이상을 충족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모델의 적합도를 보여주는 RMSEA는 .060 RMR .020 로 나타나 모델의 적합도는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모델 비교 분석은 <표 4>와 같다.

Table 4. Modification Model comparison

구분	χ^2 (b)	CMIN/DF	GFI	AGFI	NFI	IFI	CFI	RMR	RMSEA
최초 제안 모델	116.521 (.000)	3.884	.946	.900	.923	.942	.941	.023	.086
수정 모델1	90.105 (.000)	3.107	.957	.918	.941	.959	.959	.021	.074
수정 모델2	66.516 (.000)	2.376	.969	.938	.956	.974	.974	.020	.060

5. Revised model's decomposition of effects

자기통제력과 가족지지의 간접효과 및 총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hrou와 Bolger(2002)이 제안한 붓스크랩(bootstrap)방법을 사용하였다.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경로에서의 개별 값이 정규분포를 갖더라도 곱의 형태는 정규분포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정상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부트스트랩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구조모형은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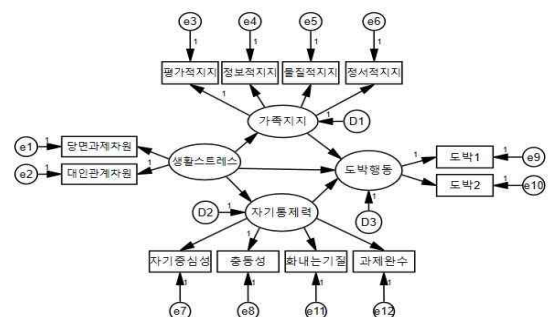


Fig. 4. Structural Equation model

Table 5. Revised model's standardized effects of direct and The total effect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총효과
생활스트레스 → 자기통제력	-.30** (-.41~-.20)	-.30** (-.41~-.20)	
생활스트레스 → 가족지지	-.35** (-.45~-.22)	-.35** (-.45~-.22)	
자기통제력 → 도박행동	-.12** (-.22~-.04)	-.12** (-.22~-.04)	
가족지지 → 도박행동	-.077 (-.13~-.03)	-.077 (-.13~-.03)	

*p < .05, **p < .01, ***p < .001

본 연구에서처럼 다중매개모델인 경우 각각의 매개변수와 관련된 개별적인 간접효과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간접효과를 분리하는 팬텀변수를 사용한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다중매개효과를 도출했다 [22][23]. 연구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는 <표 5>와 같고, 팬텀변인을 사용한 매개변수의 개별 간접효과는 <표 6>와 같다. 자기통제력과 가족지지의 간접효과와 유의성 검증에 BC(Twotailed Significance)법을 이용하여 파악한 결과 값이 자기통제력 .007, 가족지지 .017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95%로 신뢰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변수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생활스트레스가 도박행동 (.263)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결과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정서적, 심리적인 불안감을 도박행동을 통한 대처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스트레스가 자기통제력(-.302)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스트레스의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아짐으로써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활스트레스가 가족지지(-.354)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스트레스가 높수록 가족구성원과의 지지적인 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통제력이 도박행동(-.123)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도박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지지가 도박행동(-.077)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도박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생활스트레스는 자기통제력과 가족지지에 부(-)의 영향을 도박행동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기통제력과 가족지지는 도박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임이 밝혀졌다.

Table 6.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using a phantom variable studies of model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low	upper
생활스트레스 → 자기통제력 → 도박행동	-.32**	-0.42	-0.22
생활스트레스 → 가족지지 → 도박행동	-.37**	-0.50	-0.24

*p < .05, **p < .01, ***p < .001

팬텀변인을 사용한 매개변수의 개별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생활스트레스가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하여 도박행동으로 가는 경로(-.42~-0.22)와 생활스트레스가 가족지지를 매개로 하여 도박행동으로 가는 경로(-.50~-0.24)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자기통제력과 가족지지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생활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 (-.32)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부(-)의 간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스트레스는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생활스트레스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아지면 도박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생활스트레스를 덜 경험할수록 자기통제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결국 도박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쳐 도박행동을 감소시킬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생활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가족지지(-.37)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부(-)의 간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이 지각하는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도박행동을 증가할 수 있으나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도박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쳐 도박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자기통제력과 가족지지는 생활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부(-)의 간접효과를 보이는 긍정적 영향 요인임이 밝혀졌다.

V. Discussion and suggestions of analysis results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시기에 자신의 정체성발달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에 들어와서 경험하게 되는 진로문제, 취업문제 등 좌절과 갈등 속에 혼란을 경험하고 있어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했다. 생활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생활스트레스의 취약요인이나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적인 발전을 가져왔지만 대학생이 인지한 생활스트레스를 완충시켜줄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자기통제력과 환경적인 요인인 가족지지가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가 도박행동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그 영향력을 밝히고자 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을 통해 자기통제력과 가족지지의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최근 생활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에서 개인적, 환경적 자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가정에 따라 보호요인인 개인내적 자원인 자기통제력과 환경적자원인 가족지지로 설정하여 설명력을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첫째, 생활스트레스가 도박행동, 자기통제력, 가족지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는 도박행동에 정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심각한 생활스트레스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무력감에서 벗어나고자 도박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생활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도박행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24].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상집단에서 스트레스가 도박위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험 연구에서 스트레스 증가가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도박행동이 더욱 증가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도박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방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대안을 마련하여 생활스트레스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스트레스를 극복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도박행동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생활스트레스는 자기통제력에 부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지각하는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25].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영역에서 정신병리적 증상과 생활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임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생활스트레스는 가족지지에 부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이 지각하는 생활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가족구성원들과 관계지지망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 ‘가설2’, ‘가설3’은 채택되었다. 또한 자기통제력과 가족지지는 도박행동에 부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가설4’, ‘가설5’는 채택되었다. 높은 수준의 자기통제력과 가족지지는 부정적인 영향력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임을 밝혀낸 연구를 지지한다 [26].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은 부적인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6’은 채택되었다.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의 여러 보호요인 중에 개인 내적인 속성을 강조한 연구를 지지한다[27]. 선행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대학생일수록 도박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자기통제력 수준도 낮았으며 도박행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이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어 자기통제력에 따라 대학생 지각한 생활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력과 도박행동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보호요인임을 밝혀낸 연구를 지지한다 [28]. 본 연구를 통해 자기통제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생활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생활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기통제력을 발휘하여 도박행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가족지지는 부적인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7’은 채택되었다. 부모의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좋은 적응과 낮은 심리적 고통의 수준을 나타내며, 가족의 정체감형성과 지지는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다는 연구를 지지한다[29]. 따라서 가족지지를 향상시켜서 대학생이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는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족간의 상호작용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정서친밀성, 적응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가족지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로써 단일요인으로 개인내적자원인 자기통제력이나 환경적자원인 가족지지에 대한 영향력을 밝혔던 선행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개인내적자원과 환경적 자원으로 확대하여 설명력을 높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이 인지한 생활스트레스와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의 연구가 보다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여 전체 대학생 집단에 대하여 일반화 시키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생활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세대 간의 빠른 문화변화에 대응하는 보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와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 [1] Choi, Jung -Gwan(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Daily Stresson Gambling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 Center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Daegu Univ. master's thesis.
- [2] Lim, Seong-Beom (2012). "A Study on Gambling Addiction Factors of University / College Student ; Focusing on self - regulation common- sense model's application", Daegu Univ. Ph.D. thesis.
- [3] Kim Jeong Eun (2012).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gambling problems", Kosin Univ.

- master's thesis.
- [4] Jinhee Kim (2016).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Psychological Type and Human Development Vol.17, No.1, pp. 81- 100
- [5] Benard, B. (2007). California healthy kids survey. CA: WestEd.
- [6] Woo, So-yeon (2008). "Self-control and sense of humor as moderating factors for negative effects of daily hassles on school adjustment for children", Yonsei Univ. master's thesis.
- [7] Oh Yun Jeong (2015). "The effect of smart phone addiction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 school adjustment : mediating effect of self control and daily stress and regulation effect of parental supervision", Dong-A Univ. master's thesis.
- [8] Park, Sun Yoon (2013). "Influence of Stress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 Modifying Effect of L ,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and Self-Control", Korea National Univ. master's thesis.
- [9] Park, HyunMi (2011). "The Relationship of Family Support and Adolescence Career Attitude Maturity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Sangmyun Univ. master's thesis.
- [10] Kim, Jeung-Hyun (2008). "The Effects of Stress on Adaptation to School of Adolescents :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3, No.4, pp.161-183
- [11] Yoon, Inno (2013). "The Effects of gambling motive and Self-control on gambling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Jeju National Univ. master's thesis.
- [12] Gyeongpil Ko, Miyoung Sim (2015). "A Study on the Mediation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Self-efficacy on College Students' Unemployment Stres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6, pp. 379- 391
- [13] Hyeon, Ji-hyeon (2015). "A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gambling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 Moderating effect of irrational gambling beliefs" Jeju National Univ. master's thesis.
- [14]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15] Jin-hee Kim (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College Students", Ewha Womans Univ. master's thesis.
- [16] Jang, Hyo Kang (2015). "The Impact of stress of college life is on the gambling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control", Busan Digital Univ. master's thesis.
- [17] S. Cohen and T. A. (1985). "Wills,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98, No.2, pp.310-357
- [18] A. Peterson, (1982). "Adolescents and stress. In L. Goldberg & S. Breznitz (Eds)", Handbook of stress-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N.Y : Macmillan, Inc, pp.515-528
- [19] M. Rutter,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57, pp.316-331
- [20] Bok Soon Kwon, Young Ho Kim (2011). "A Study of Gambling Addiction and Its Actual Condi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39, pp. 5-28
- [21] Byeong-II, Jeong (2014). "A Study on the Impacting Factors of College Students' Gambling Behavior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cological System Factor", Chosun Univ. Ph.D. thesis.
- [22] Cheung, G. W., & Lau, R. S. (2008). Testing Mediation and Suppression Effects of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1(2), 296-325.
- [23] Guo Yue (2016). "Generalizing of Integrated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for Job Satisfaction: An empirical evidence from the analysis of Korean working women's data", Yonsei Univ. master's thesis.
- [24] Choi, Jung -Gwan (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Daily Stress on Gambling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 Center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pp. 193-216
- [25] Woo Rim Choi (2006). "The Effect of Stress and Coping on Gambling Behaviors : Affinity to Pathological Gambling and Chasing", Kangwon National Univ. master's thesis.
- [26] Hui-Joo, Noh (2016).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Irrational Gambling Behavior and Implusivity on Gambling Behavior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Self-Efficacy", Chosun Univ. master's thesis.
- [27]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28] Kim, Won-Hee, Lee, Dong-Hun (2010).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Interparental Conflict and Self-Control, School Mal-adjustment Behaviors i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1, No.4, 1767-1782
- [29] C. J. Holahan, D. P.(1995). Valentiner, and R. H. Moos, "Parental support,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 An integrative model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24, pp.633-648

Authors



Byeongll Jeong received the M.S and Ph.D degree in Social Welfare from Chosun University, Korea in 2011 and 2014 respectively. Byeongll Jeong is currently research institute director in the Institute for Integrated psychological counseling.

He is interested in Family Welfare, Silver Welfare, and research method.



SangUk Baek received the M.S and Ph.D degree in Social Welfare from Chosun University, Korea in 2006 and 2015 respectively. SangUk Baek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Social Welfare at Songwo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Handicapped welfare and social welfare legislation.